

즉시 배포용: 2019 년 7 월 29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 법안에 서명

마리화나 불법 소지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으로 형 감소

마리화나 관련 혐의로 기소된 개인의 범죄 기록 말소 절차 마련

Cuomo 주지사: "유색 인종 지역 사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불균형적으로 마리화나를 통제하는 법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이제는 이러한 부당함을 완전히 근절해야 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마리화나 사용을 추가 합법화하는 법안(S.6579A/A.8420)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의 기존 마리화나 규제 법안은 아프리카계 및 라틴계 미국인 지역 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안은 마리화나 불법 소지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으로 줄이고,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로 기소된 개인의 범죄 기록을 말소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인종 및 민족 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2013 년 마리화나 추가 합법화를 최초로 제안한 후 2020 년 회계 연도 예산안에서 다시 제안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제정 30 일 후 발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색 인종 지역 사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불균형적으로 마리화나를 통제하는 법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이제는 이러한 부당함을 완전히 근절해야 합니다. 마리화나 관련 부당한 혐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개인의 범죄 기록을 말소하고 가혹한 처벌을 경감함으로써 차별적이고 잘못된 형사 사법 절차를 바로잡는데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뉴욕주의 잘못된 사법 제도를 개혁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유색 인종 지역 사회가 불균형적으로 표적이 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상원 민주 다수당은 마리화나의 완전한 합법화와 규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오늘 마리화나 합법화가 좋은 첫 단계입니다."

뉴욕주 하원의 **Carl Heastie** 하원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법은 뉴욕주의 현행 마약법으로 인해 야기된 수십 년간의 부당함을 바로잡는 데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마리화나 합법화와 경범죄자 범죄 기록 말소는 기존 법규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은

특히 유색 인종 지역 사회 시민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 기록에 따른 장벽과 부정적 인식을 제거함으로써 뉴욕 시민이 직장과 주거지를 찾고 생산적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 것입니다."

이 법은 다음을 통해 마리화나 관련 법 집행이 더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마리화나 불법 소지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으로 형 감소, 2 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형사 처분 폐지 그리고
- 마리화나 관련 혐의로 기소된 개인을 위한 소급적 또는 향후 범죄 기록 말소 절차 마련.

Jamaal T. Bailey 뉴욕주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화나 소지로 기소된 개인은 해당 범죄 기록이 일평생 따라다니게 되어 교육에 대한 접근이 잠재적으로 제한되거나, 취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소급적 또는 향후 범죄 기록 말소를 위한 메커니즘 마련은 유색 인종 지역 사회 시민에게 큰 타격을 준 가혹한 마약 전쟁을 끝내는 데 있어 올바른 방향을 향한 한 단계입니다. 저는 **Crystal Peoples-Stokes** 하원의 다수당 대표와 하원 스폰서, **Andrew Cuomo** 주지사, **Andrea Stewart Cousins** 다수당 대표, **Carl Heastie** 하원 의장에게 이 사안에 관련하여 보여준 헌신과 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Crystal D. Peoples-Stokes 하원 다수당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유색 인종 지역 사회 시민은 차별적인 형사 사법 정책의 표적이 되어왔고,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해 다른 시민들은 구속되거나 기소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심각한 대가를 치러왔습니다. 뉴욕의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가 완전하게 이뤄지면, 특정 지역 사회를 부당하게 겨냥하는 이러한 반복적인 억압을 근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에 서명하여 평등의 이름으로 중대한 조치를 취해주신 주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